

# 大學附設 中國學 研究所\*의 과제와 방향

元 廷 植\*\*

1. 중국학, 그리고 대학 부설 연구소
2. 연구소 관련자의 적극적 활동과 기능 보완
3. 연구소의 특성화와 중점화
4. 국학 및 지역연구소와의 연계성 강화
5. 연구 기초의 강화와 연구성과의 현재화

## 1. 중국학, 그리고 대학 부설 연구소

한국에게 중국은 정치·경제적 국제관계의 대상 그 이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천년 이상 한국은 중국적 세계와 깊은 관계를 가져왔고 중국에서 유입된 문화는 대부분 우리의 민족문화로 정착되어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자리잡고 있다. 또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은 21세기에도 한국의 운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경쟁과 극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수많은 고대문명 중에서도 살아남아 그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방향에 걸

---

\* 중국학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중국학 연구소”의 연구범위도 광범위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문학, 역사,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분야의 중국학 연구소만으로 대상을 축소하겠다.

\*\* 서울대 동양사학과 강사

친 역사적 경험의 보고이다. 이에 한국의 중국 연구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와 다를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나 미래의 각종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중국은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중국 연구는 중국의 중요성의 변화에 따라 강조점이 이동하면서 변해왔다. 이미 문학·역사·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는 “민족문화의 근원적인 이해나 학문적 독창성 욕구의 충족”과 같은 문제의 식 위에서 1950년대이래 몇몇 연구소가 설치되었고 많은 연구자와 연구업적이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또 지난 1970년대이래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고 한중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서 중국의 정치·경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많은 중국관련 연구소가 만들어졌으며, 최근에는 지역학 연구 분위기의 확산 속에서 지역전문대학원과 중국학과가 개설되고 연구자와 연구업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권태환·이상섭편, 1998).

그러나 위기와 급변의 시대를 사는 현재 한국에서 중국학 연구는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많은 문제점을 들 수 있으나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분과학문간 분열성의 심화, 학문 방향성과 효용성 약화, 많은 연구 인력의 사장,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현대 한국사회의 제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문분야 중국학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연구자 단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학문적 또는 학제간 연구와 공동연구, 그리고 역량의 결집을 통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

공동연구나 학제간 연구, 그리고 역량 결집의 장으로서 주목되는 것이 중국학 관련 대학부설 연구소이다. 현재 대학 부설 연구소는 대학에서나 사회에서 그 위상이 매우 낮으며 작금의 대학 구조 조정 과정에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대학 부설 연구소는 많은 이점이 있다. 첫째 경제성이 높다. 대학 이외에다 새로운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대학에는 다양한 학과와 연구자가 있으며, 도서관, 연구실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 재생산이 용이하다. 대학은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고 학생의 유입을 통하여 연

구자의 재생산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연구와 교육을 연계시키기가 쉽다. 다양한 연구성과를 곧 교육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밖에도 대학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학부제가 가진 문제나 학과중심의 학문의 분열성을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 부설 연구소는 양적인 면에서 상당히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 부설 연구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실적 없는 연구소, 연구원 없는 연구소, 연구비조차 없는 연구소가 난립해 있다’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박거용, 1998). 대학부설 연구소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였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박준식, 1995; 이상섭·권태환 편, 1998; 박거용, 1998).

- ① 연구소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유사 연구소의 난립과 기능의 중복, 경쟁력 약화.
- ② 정부 및 대학 행정 차원에서의 정책 미비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연구공간, 연구자료 등 연구 기반의 취약.
- ③ 연구소 재정의 취약과 연구 활동의 부진.
- ④ 학술회의, 간행물 발행 실적, 국제 교류 등 연구소 고유의 활동 취약.
- ⑤ 연구소 평가 체제의 미비로 인한 경쟁력과 자생력의 저하.
- ⑥ 연구소 자체의 자구 노력 결여.
- ⑦ 전임연구원 결여 또는 부족.
- ⑧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 ⑨ 연구소의 방향 모호.

그리고 이러한 대학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박준식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었다.

- ① 연구소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하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켜야 한다.

- ③ 연구소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연구성과가 미비한 연구소들은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이루어야 한다.
- ④ 정부와 대학당국은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아울러 연구소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연구소 자체의 장·단기 발전계획 마련, 연구소 운영의 개방화, 전임 연구원제 도입, 연구소장의 전문가화 등 지구 노력을 통한 연구소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대학 부설 연구소의 제문제와 활성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연구소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니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소는 다른 분야의 연구소보다도 더 사정이 나쁘다. 다만 연구소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비슷비슷한 연구소, 경쟁력 없는 연구소의 난립이 문제라고 할 때,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고 할 때, 각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학문의 실정에 따라서 다양한 해법이 가능하다고 할 때,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소는 어떠한 과제와 방향이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연구소의 위상 제고를 위한 연구소 관련자의 적극적 활동과 연구소 기능의 보완, 연구소의 특성화와 중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국학 및 지역연구소와의 연계성 강화, 기초적 연구의 심화와 연구성과의 현재화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연구소 관련자의 적극적 활동과 기능 보완

첫째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소의 기능과 설립목적에 충실하도록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연구소는 연구, 학술교류, 교육, 활용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소마다 설립목적에는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는 연구소가 많지 않으며 이는 연구소를 불필요하고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제

일 먼저 꼽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 앞에서 든 많은 문제점은 제도나 정책적 원인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연구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연구소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설립목적에 상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주체는 연구소 관련자들이다. 실제로 많은 인문분야 연구소의 활동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위시한 연구소 관련자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연구업적이 출판되고 많은 학술토론회가 열리는 등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비로소 연구소의 위상이 확립되며, 연구원의 충원, 연구소 단위의 사업의 확보,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연구 인력의 사장을 막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신진 연구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연구활동의 지원은 학문의 유지, 발전, 나아가 한국의 장래를 위한 기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실직자 대책이나 공공근로사업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대부분 활동하고 연구할 공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하여 시간강사나 잡일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소는 최소한 이런 미취업 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공간과 자료, 연구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진연구자 지원에 대하여 1990년에 이성규 교수는

“많은 경우 현재의 연구비는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생활보조금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소가 설립되어도 그 재정적 혜택은 2중 3중으로 전임교수들에게 분배될 뿐 전임 연구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연구자의 양성에 관심을 보이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현재 전임 교수에게 지급되는 1건당 연구비는 아쉬운 대로 젊은 연구자 1명을 1년간 지원할 수 있고, 2건의 연구비는 그가 그런 대로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액수라고 보아도 과히 틀린 계산은 아닐 것이다. 물론 전임 교수에게도 더 많은 연구비를 지급하고도 연구소 연구직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원래 자신의 봉급으로 생

활하며 연구하기로 되어 있는 전임 교수의 보다 나은 연구여건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의 일부만이라도 연구소의 전임 연구원을 확보하는 데 전용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 하였다(李成珪, 1990). 이러한 제안은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지원도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구원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문제에 대하여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 연구소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새로운 연구주제와 사업을 개발하는 한편, 연구소 명의를 빌려 수령한 연구비의 일정부분을 연구소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연구소의 재정을 보완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셋째 공동연구와 학문통합의 장으로서 연구소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분과학문과 분과학문, 그리고 각 분과학문과 지역연구가 분열하여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문성은 현대 학문의 특징으로서 학문 발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전문성이 그 자체에 매몰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특히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이 다루는 대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학문의 분열성은 학문의 방향성을 상실하기 쉽고 학문의 현실적 기반인 효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초학문 자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위기’, ‘역사학의 위기’와 같은 기초학문의 위기는 외부적 요인에서라기보다는 우선은 학문 자체에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자 자신과 연구자 집단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조동일, 1993, 1997; 李成珪·韓永愚·裴永洙·崔夢龍, 1996; 전성홍, 1998; 강내희, 1998 등).

전문성과 통합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를 부정할 사람은 없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연구소는 분과별 연구를 종합하고 공동연구를 조직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선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분야 연구자가

학과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어 학생의 선발·교육·학위가 모두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친분이 없다면 서로 만나 공동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연구관심을 교환할 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로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몇 가지 제도적 보완과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책임 있는 연구원과 전문연구소장을 확보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연구비 운영에서 공동연구나 통합성 연구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연구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학원에 문학·사학·철학의 합동과정을 설치함으로써 문·사·철을 아우른 연구자를 배출하도록 하거나, 학부 교과에 대해서도 연구소 단위의 통합성이 높은 교과과정을 개발함으로써 다전공의 통합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 3. 연구소의 특성화와 중점화

비슷한 연구소 명칭, 비슷한 목표, 그리고 영세한 재정상태에서 쉽게 엇볼 수 있는 것처럼 비슷비슷한 연구소는 적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소는 무의미하므로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 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소는 각자 존재의의가 있으므로 그 존재의의를 차등화하고 특성화하여 서로 경쟁시킨다면 대학연구소의 효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엄격한 평가에 따라 연구소의 등급과 지원이 결정되어야 하며, 평가시 특성화와 중점화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를 구체화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연구소의 특성화에 대하여 박준식 교수는 먼저 관심영역에서 특성화되

고, 다음은 목적과 기능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연구소의 설립목표 중심으로 ① 우수 논문 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② 산학협동을 위한 연구소, ③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예술·문화 등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소, ④ 대학의 창학이념 구현을 위한 연구소, ⑤ 국제 지원을 위한 연구소, ⑥ 우수 연구 센터문제를 들었다. 이는 모든 연구소에 대한 것이므로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소로 좁혀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이 중시될 수 있다.

첫째 특수 분야 연구소의 활성화이다. 새로운 관심과 문제의식의 확산은 새로운 연구소를 계속 분화시킬 것이며 이것은 학문의 발전이나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다. 각 대학에는 특수 분야 연구자가 많이 있으므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임을 지속하고 성과가 축적되면 연구실 또는 특수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한다(송도영, 1998). 이 연구소는 특수한 분야이므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연구자로도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해당 교수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그의 자료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인 것이다. 이러한 연구소는 특수 분야 배양기이자 교육의 장으로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나 연구영역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화가 기존의 연구소처럼 “연구소 신설→분화→경쟁력 약화→부실화의 악순환”을 밟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도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가고 각 도시나 지역간의 교류가 빈번한 현실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연구소 역할이 분명해져야 할 것이다. 또 연구소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은 연구를 다양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목포대학교의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나아갈 방향을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고려대의 아세이문제연구소, 서울대의 동아문화연구소, 한림대의 아시아문화연구소 등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아시아 사회의 전체 시스템



에 대한 탐구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방법론과 우리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 곧 지역사회연구와 그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데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제시하였다(許錫·朴赫淳, 1997).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역적 입지에 따른 특성화와 연구성과의 지역사회에의 환원이란 주장은 경청할만 하다.

셋째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중심연구소 선정과 지원을 통한 집중화이다. 현재 대학이 학과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수의 전공이 전국으로 퍼져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 대학에서 연구소를 특성화시키고 평가에 기초하여 분야별 가장 우수한 연구소를 중심 연구소로 선정하고 각 대학이나 학과에 퍼져있는 연구자들을 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활동을 조직한다면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소에는 대학원에 준하는 연구인력 재생산 기능도 부여한다면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점연구소를 지역이나 연구분야의 실정에 맞추어 한 개 또는 몇 개를 두어서 전국의 연구소를 상호경쟁시킨다면 연구뿐만 아니라 재정활용도 효과적일 것이고 아울러 각 연구소의 동반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덧붙일 것은 현재 많은 중국연구소가 있지만 전문적인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소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현실에서 이 분야의 중점연구소의 육성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 4. 국학 및 지역연구소와의 연계성 강화

기초학문이 경시되는 지금 인문부문 중국학 연구자들의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 원인은 무엇보다도 전술한 바와 같

이 학문 연구자의 주체의식 결여 및 분과학문의 분열성 심화와 같은 학문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는 국학에의 관심과 지원 및 중국 지역 연구와의 연계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중국학 연구는 국학과의 연계성이 괴리되어 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부설 동아문화연구소의 변화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소는 동양학 및 국학연구자의 개인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협동적인 연구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1961년에 설립하였다. 이때 원칙으로 국학 및 동양학 전분야를 망라하며, 소속학과에 구애되지 않고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설 기관이었던 이 연구소는 1963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연구소가 되면서 “한국 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동양문화를 연구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세계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후 한국문화연구소가 독립하여 연구소의 기능을 “한국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평가 및 보급”으로 정함에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게 되었고, 동아문화연구소도 주로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연구소의 독립은 시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양자의 연계가 계속 이완되는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한국연구와 괴리되고 한국연구의 성과는 동아시아 연구에 이바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학의 뿌리를 이해하고 중국 연구의 목적과 인문학으로서의 중국학에 대한 명확한 목표조정이 필요한 중국학이나, 국제관계나 사회변화가 동시적이고 범지구적인 현재 폭넓은 한국 이해를 필요로 하는 국학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국학 연구자가 끊임없이 국학연구를 수용하고 한국과 관련되고 또 관련 지우는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중국학 연구의 입장을 선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가 국학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1965), 《韓國近世對外關係文獻備要》(1966) 등과 같이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에서 행하였던 심여건의

공동연구는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활동은 그후 증가하지 않았고 대부분 공동연구나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중국의 정치, 경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이 급증하면서 중국학이나 지역 대학원이 급증하였다. 그리고 지나치게 광범하거나 모호하였던 기존 연구소의 방향도 점차 분명해지고 각 연구소가 처한 객관적 현실,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연구소의 특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현대 중국의 정치와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소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필요나 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임은 부언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인문부문의 연구가 침체되면서 사회과학분야의 중국연구가 지향하는 깊이 있는 이해나 장기적 전망조차도 불완전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연구의 중심은 주로 경제, 정치분야이므로 중국의 장기적인 변화나 심층적 이해에 유용한 인문분야 중국학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중국연구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던 것처럼 한국의 중국 지역 연구도 미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그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그 변화에의 효과적인 대응도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병곤, 1994; 김경일 편저, 1998).

아울러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도 지역연구를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는 한편 지역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 주제와 방향, 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역사가이지만 중국전문가”라는 말은(베에르 에머엔스 빌, 1996) 이 시대의 중국학 연구자가 어떠한가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학회나 연구소간의 공동작업이나 토론, 학술회의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 연구 기초의 강화와 연구성과의 현재화

현재 인문분야 중국학 연구소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할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연구소의 연구활동은 개별연구의 활동과 달리 조직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별 연구자가 하기 어려운 분야나 중요하긴 하나 학계나 사회적으로 아직 관심이 적은 분야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는 크게 연구기초의 강화와 연구성과의 현재화로 정리할 수 있다.

연구 기초의 강화에는 우선 연구주제의 선정이 중요하다. 연구소에서 기초연구를 심화하여야 함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는 그 분야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연구가 중복되어 유사한 수십편의 논문과 책이 있으나 정작 필요하고 연구되어야 할 많은 부분은 전적으로 외국어로 된 연구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중점 분야에 대한 선정과 체계적인 연구,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이 부분을 연구소의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중점분야의 연구주제를 선정할 때 현재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선정의 한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 기초중 우선 시급한 것이 우리말로 된 공구서의 확보이다. 한국에서 중국학 연구를 위해서는 수많은 공구서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중국어, 일어,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훈련된 연구자조차도 이 공구서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그나마도 없는 공구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외국어를 구사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 재생산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 문제에 기초한 우리 학문을 세우기 어렵게 만든다. 몇몇 연구소에서 사전을 만들고 색인과 도서 목록을 만들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각종 공구서와 더불어 기초 자료의 번역, 고전의 번역과 해설, 중요 연구서의 번역, 그리고 이것들의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우리

는 조선왕조실록의 CD가 만들어짐으로써 조선시대사 연구가 활발해지고 대중화도 촉진되었던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기초의 강화는 단순히 연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딛고 서있는 사회에 연구성과를 환원시키는 것으로 연구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편 연구성과의 보급과 대중화는 이제까지 연구소의 관심밖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연구가 사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연구나 번역이 중복되고 있다. 이는 연구인력의 측면이나 비용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낭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모두 개별 연구자나 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연구성과를 충분히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구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용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기반을 확대하며 나아가 학계나 사회의 검증을 유도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높여 연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 부문은 이제까지 대부분 개인과 출판사가 맡아왔다. 그 결과 학문적 필요나 깊이보다는 대중적 수요에 추종하여 일부 분야에 편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판사간의 경쟁으로 중복에 중복을 거듭하게 되었다. 일부 한문 고전이나 몇 쪽되지 않는 영어책은 수 개 혹은 십수 개의 번역본이 존재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성과의 홍보와 활용에도 연구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나 언론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가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연구소와 연구성과의 성격에 따라서는 연구소 관계자가 독자의 상황이나 사회적 관심사의 조사, 내용과 매체의 선정, 기획과 편집, 그리고 그 발표물에 대한 대중적 반응의 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제 중국학은 현실과 괴리된 채 상아탑의 방패뒤에 숨을 수도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중국에 대한 무궁한 정보를 우리의 입장에서 더 깊이 분석하고 체계화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이 사회에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연구자들의 몫이다. 그리고 존폐의 논란이 많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환골탈태시켜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작업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 紹介〉, 《東亞文化》 第1輯, 1963.  
《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 要覽, 1961-199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안내, 1969-1998》.  
강내희, 1998, 《지식생산, 학문전략, 대학개혁》, 서울, 문화과학사.  
김경일 편저,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문화과학사.  
박거용, 1988, 〈한국 인문학 정책 : 연구자원과 그 평가를 중심으로〉,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 《현대사회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 민속원.  
박준식, 1995, 〈대학부설연구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대학교육》, 1995년 3·4월호.  
삐에르 에띠엔느 빌(Pierre-Etienne Will), 1996, 〈근대 중국과 중국학〉, 《지역연구뉴스레터》 26.  
송도영, 1998,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지역전문가 양성체제〉, 이상섭·권태환 편, 1998.  
이상섭·권태환 편, 1998, 《한국의 지역연구 :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출판부.  
李成珪, 1990, 〈中國史研究의 現況과 課題〉, 《우리나라 地域研究 現況問題點.活性化方案研究》, 서울대학교 地域研究綜合센터.  
李成珪·韓永愚·裴永洙·崔夢龍, 1996, 〈歷史學 및 考古學의 回顧와 展望〉, 《서울대학교學問50年》( I ).  
전병곤, 1994, 〈중국연구의 방법과 과제〉, 《중국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15.  
전성홍, 1998, 〈한국의 중국연구 : 현황과 과제〉, 이상섭·권태환 편, 1998.  
조동일, 1993,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조동일, 1997,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許錫·朴赫享, 1997, 〈아시아文化研究所의 나아갈 방향〉, 《아시아文化研究》(목포대) 1.